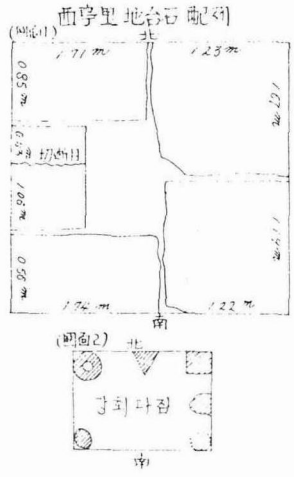
2、「考古美術」第三卷第十號 拙稿：「堤川月岳 山德周寺址의 調査」參照

資 料

青陽定山九層石塔의 補修

洪 思 俊

青陽定山面西亭里 塔補修工事는 二十一日에 完了하였다。石材는 定山에서 十里外에서 運搬한 것을 알겠고(古老談에 東十里에 이같은 石材가 있다함) 治石도 매우 곱게 하였으나 塔의 身部 屋部가 均衡을 잃어서 積石에 困難을 받었고 박킹鐵片이 比較的 많이 들었다。屋蓋石의 上下層이 斜線을 갖어야 되겠는데 그렇지못하고 또는 塔身도 薄厚가 있고 四面이 同一尺數가 되지 못하였다。더우기 基壇 臺石도 前面만 一石을 保有 其他面은 엇물리어 配石하였고 眼象文은 南 北面에 左右로 있으나 東面은 眼象內 花文이 셋 西面은 一個가 不足하였다。地臺石은 높이 30。5cm內外에 圖面(1)과 같이 되었다。中央은 空間에 土石을 充滿시키었고 地下 二尺餘에는 강회와 白土로 다져있는데 基壇보다 若干 大로 不正面으로 있었고 圖面(2) 같이 地臺石을 놓기 爲하여 大石으로 四角에는 박킹을 괴여있었는데 北側은 강회面이 不足해서 土石으로 充當한 關係로 石塔全體가 北側으로 傾斜된것 같다。今次 세멘工事로써 그 前것을 그냥 두고 地臺石과 세멘工事를 施行하였고 地臺中央空間도 메구었기 때문에 견고하리라고 본다。



青陽定山九層石塔의 舍利孔

黃 壽 永

十一月 一五日에 着工되어 解體가 이루어졌다。이 塔에서는 舍利藏置가(註1) 期待되어 왔으나 上層 基壇甲石의 上面中央部에 青銅破片(大小約 二十片)만이 남아있어 數年前에 盜難된 것으로 判定되었다。舍利孔 第一塔身 下面中央에 안으로 얕은 一段의 턱을 돌린 圓孔(徑十四cm 깊이 十五cm)으로서 破片으로 미루어 青銅圓筒形器(註2)가 藏置되었던 것으로 推定되었다。이같은 藏置方式에 대하여 附近 住民들은「鐵柱」가 數年前까지 들어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工事中 下寺(左書陽刻)라는 銘平瓦片이 發見되었는바 俗稱「녹야塔」이라고도 한다。이工事의 監督官은 洪思俊氏이며 筆者가 立會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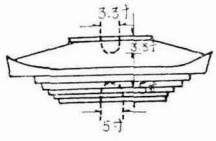
註一、「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書」六四二頁青陽郡西亭里石造九層塔條

註二、「博物館陳列品圖鑑」第九輯에 보이는 忠南牙山石塔發見의 圓筒容器와 同形의 것으로 생각된다。

清涼寺三層石塔의 舍利藏置孔

金 禧 庚

陝川郡伽倻面緇仁里清涼寺의 三層石塔은 一九五八年에 修理를 하였는바 二層屋蓋石 上下面에 舍利藏置孔을 가지고 있는 好例로서 二、三層屋身石에는 別다른 加工이 없다고 한다(寶物 二六六)



清涼寺塔의 舍利孔